

## 글로리아 네일러의 『베일리의 카페』: 섹슈얼리티의 발견, 주체의 탄생, 치유의례

이 연 속  
(충남대학교)

Lee, Yeonsuk. "Gloria Naylor's *Bailey's Cafe*: Discovery of Sexuality, Birth of Subject, and Healing Ritual."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139-169.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Gloria Naylor heals black women who have suffered from multi-layered oppression and pain, such as class discrimination, racism, and sexuality discrimination, in *Bailey's Cafe*. Black women who have been oppressed by sexuality since childhood have not been able to grow up properly. Sadie, who was forced to engage in prostitution due to her mother, cannot have true love even if she meets her loved one. Peaches, who internalizes social definition for women, divides into two egos and damages her body. Sweet Esther, who was forcibly sold by her brother, refuses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does not come out of the basement. Eve, who lived a controlled life for the Godfather, is born as a new subject through the discovery of sexuality. Eve respects her body and recognizes its value. Eve, who has secured subjectivity through the discovery of sexuality, gives dignity to black women through spirituality and tries to heal the community. Eve heals hurt black women through rituals at Bailey's cafe. Naylor grants dignity to women whose sexuality has been damaged in *Bailey's Cafe*. (Chungnam University)

**Key Words:** Gloria Naylor, *Bailey's Cafe*, Sexuality, Subjectivity, Spirituality.

### I. 들어가며

글로리아 네일러(Gloria Naylor 1950-2016)는 4부작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The Women of Brewster Place* 1982), 『린든 힐즈』(*Linden Hills*

1985), 『마마 데이』(*Mama Day* 1988), 『베일리의 카페』(*Bailey's Cafe* 1992)를 통해서 노예 제도 이후 미국 흑인 사회의 각 계층의 문제점과 상처를 드러내며 그 속에 살아가는 각 개인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시도한다.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다층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흑인 여성들이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성숙된 자아로 성장하여 공동체로 나아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한다. 『린든 힐즈』는 흑인 중상류층의 이야기인데 작가는 백인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 중상류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유머와 날카로운 사회 풍자로 지배계층의 부도덕성을 드러낸다. 그녀는 『마마 데이』에서 윌로우 스프링스(*Willow Springs*)라는 이상적인 흑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흑인 고유의 전통과 의례로 아픈 이들을 치유한다. 그녀는 『베일리의 카페』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녀들이 차마 하지 못한 말, 그녀들의 이야기를 다시쓰기 한다. 네 작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데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에서 흑인 민족주의와 흑인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키스와나 브라운(*Kiswana Browne*)은 『린든 힐즈』의 중산층 출신이고, 『마마 데이』의 코코(*Cocoa*)의 사랑하는 연인, 조지(*George*)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베일리의 카페』에 등장한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리아 네일러는 네 작품에서 흑인 여성들의 고통과 치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흑인 여성들의 고통을 깊이 들어 가보면 가장 먼저 주체의 문제와 마주대하게 된다.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단단한 온전한 개체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은 외부의 압력과 자기 검열로 온전히 주체로서 보지 못했다. 특히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금기로 침묵당해 왔다. 네일러는 『베일리의 카페』를 집필하기 위해 매춘부들을 인터뷰하고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일러는 작품 속에 그 매춘부들의 삶을 그려낸다. 네일러는 등장인물들이 매춘을 통해 돈을 벌지만 작품의 근본적인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성(*femaleness*)과 여성의 섹슈얼리티(*female sexuality*)를 정의하는지, 이브이후 여성이 어떻게 성적역할(*sexual roles*)에 캐스팅되었는가에 달려있다”(Berson 2)고 말한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베일리의 카페』에서 흑인 여성의 주체의 문제를 노예 제도, 가부장제 보다 그 이전 성서 창세기의 이브(*Eve*)로 돌아간다. 토메이코 애쉬포드

(Tomeiko R. Ashfo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글로리아 네일러는 『베일리의 카페』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을 모티브로 하였고, 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여성들의 성에 대해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섹슈얼리티의 복원을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여성들의 문제는 성서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흑인 여성들의 고통의 근원을 성서에서 찾고, 성서로 돌아가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치유를 시도한다.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가부장제의 창조』(*The Creation of Patriarchy*)에서 성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억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녀에 의하면 성서의 가족 구조는 가부장 구조인데 부인은 남편을 바알 혹은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며 모세의 십계명에 부인은 하인들, 황소, 당나귀와 함께 남편의 소유물 목록에 올라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딸을 노예나 매춘부로 팔수도 있었다. 결혼 전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버지와 남자 형제의 통제를 받다가 결혼하면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남편이 죽으면 가족내 세습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남자 형제와 재혼을 해야 했다. 결혼할 신부는 성 경험이 없는 처녀야 하고 부인은 이혼할 수 없으며 강간을 당하면 강간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죄와 악이 되어버리고, 남성에 의해 사유 재산으로 전유되었다. 그녀는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지만 다름에 기초한 가치와 함축성은 문화의 결과”(6)라고 말한다. 그 사회가 어떻게 여성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가부장제 이후 여성은 늘 종속되어 왔고, 여성은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부장제가 탄생하기 전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성스럽고, 신비의 영역으로 추앙받는 시대가 존재했었다. 고고학자들은 과장된 가슴과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풍요의 여신상들, 의자에 앉아 애기를 낳는 형상,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상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품들과 무덤의 매장품등을 발굴하고, 유물들에 나타난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성이 존중받던 시절을 밝혀낸다. 마리아 김부타스(Marija Gimbutas)에 의하면 성배로 상징되는 여신의 시대에는 공격용 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혈통과 상속이 어머니 중심이었으며 계급이나 성적 차별이 없는

무 계층 사회였다고 주장한다(17). 또한 리안 아이슬러(Riane Eisler) 역시 『성배와 칼』(*The Chalice and The Blade*)에서 크레타(Creta) 문명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역동성이 넘치는 예술을 숭상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한 사회였다고 평가한다.

그 시대에는 여성의 성이 죄악시 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남성의 재산으로 종속되는 시대가 아니었다. 여성의 성은 세상 만물과 연결되어있다고 생각되어 인간의 섹스는 세상 만물의 생명력도 함께 증진시킨다고 생각되어왔다. 섹슈얼리티는 “우리 안의 깊은 곳, 여성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위치한 자원으로,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감정의 힘”(Lorde 43)으로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와도 같다. 몸과 마음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데 몸의 억압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리아 네일러가 『베일리의 카페』에서 계급 차별, 인종 차별, 섹슈얼리티의 차별 등 다층적 억압과 고통에 시달려 온 흑인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섹슈얼리티를 억압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외상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섹슈얼리티를 억압당한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몸의 가치를 인정하며 주체적 자아로 성장해 나아가는지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이브의 개인적 성장을 통해 그녀가 성서의 이브에게 어떤 말을 부여하는지, 섹슈얼리티의 발견을 통해 이브가 어떻게 주체로 성장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섹슈얼리티의 발견으로 주체성을 확보한 이브가 어떻게 영적 확대를 통해 베일리의 카페에 모여든 상처받은 공동체 여성들을 치유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개인 외상

글로리아 네일러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작품 속의 인물들을 특정한 공간에 배치한다.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에서 브루스터가 부동산 회사 사장과 시의원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생아”(2) 같은 장소로 미국 역사에서 주변화 된 흑인 공동체를 의미하듯 『마마 데이』에서 육지와 다리 하

나로 연결된 윌로우 스프링스는 흑인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설정된다. 마찬가지로 『베일리의 카페』<sup>1</sup>의 베일리의 카페는 평범한 장소가 아니다. 베일리 카페는 “세상과 무한한 가능성 사이의 경계”(76)에 위치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을 안고 들어와 희망을 품고 나갈지 아니면 인생을 끝내버릴지 스스로가 선택해서 오고, 선택해서 나가는 “정거장”(221)이다. 이 카페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고 “진짜 이동 가능한”(real mobile)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 카페의 위치가 베일리 자신에게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이브에게는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 있다. 세이디(Sadie)에게는 시카고(Chicago)에 메리(Mary)에게는 신시내티(Cincinnati)에 존재한다. 마리암(Mariam)에게는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 있다. 그리고 미스 메이플(Miss Maple)에게는 피츠버그(Pittsburgh)에 존재한다. 카페 자체가 특별한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일시적인 고객들에게는 완벽한 안식처이다. 베일리의 카페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이 있는 이브의 하숙집이 있고, 유대인 게이브(Gave)의 전당포가 존재한다. 이 세 공간이 『베일리의 카페』의 주제를 이끌어 가는 공간이다.

베일리의 카페와 이브의 정원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섹슈얼리티를 억압당하고 상처를 안고 찾아오는 여성들이다. 섹슈얼리티라 함은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성의 감각적 측면으로 성이 불러일으키는 에로틱한 욕망이다. 섹슈얼리티는 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모든 경험 속에서 몸과 마음이 느끼는 에로틱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섹슈얼리티는 개인이 타인에게 느끼는 성적 끌림, 성적 욕망, 자신을 표출하는 성적 행위,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과 문제등 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이라 하겠다. 여기서 서로가 느끼는 관계라 함은 평등의 관계이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폭력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이끄는 힘”(hooks 195)이고, 내 안에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에너지이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서로를 잇는 다리(로드 46)”를 형성한다. 섹슈얼리티는 내 몸에 대한 긍정이며, 내 몸에 대한 단단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sup>1</sup> Gloria Naylor, *Bailey's Cafe*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1993) 이하 이 작품에서 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기록함.

개체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일리 카페에 찾아오는 다수의 여성들은 종속의 관계에서 섹슈얼리티를 억압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녀들의 삶은 더욱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네일러는 세상의 모든 궁핍한 자들을 그녀의 작품 속에 불러들이고, 세상의 모든 불행을 그녀들 위에 쌓는다”(Chavanelle 68). 네일러는 이브이후 여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보여준다. 필립 페이지(Philip Page)에 의하면 베일리의 카페에 찾아오는 여성들은 “심리적인 우물”(psychological well)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심리적 우물은 흑인 여성들이 당한 심리적 상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흑인 여성들이 올바른 자아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다음에 소개할 세 명의 여성들은 섹슈얼리티 억압으로 심리적인 외상을 당했는데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의 예를 보여준다. 세이디(Sadie)는 엄마의 낙태 실패로 태어난 여성으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몸을 팔게 된 여성이다. 베일리 카페에 찾아오는 여성 중 메리(Mary)가 두 명인데 첫 번째 소개되는 메리는 아빠 짐(Jim)이 피치스(Peaches)라고 부르는 여성이다. 그녀는 섹슈얼리티의 억압으로 두 명의 자아가 충돌하는 여성이다. 스위트 에스더(Sweet Esther)는 어린 나이에 오빠에 의해 강제로 부자 농부의 씨반이로 팔려가 섹슈얼리티가 억압된 여성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억압되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인간성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알아 볼 것이다.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의 무드 인디고(Mood Indigo) 재즈 음악에 맞추어 나이든 여자와 남자가 부두에서 춤을 춘다. 아이스 맨 존스(Jones)는 세이디의 손을 이끌고 베일리 카페 뒤에 있는 문을 연다. 베일리 카페의 뒤에 있는 문을 열면 “세계의 끝과 무한한 가능성의 경계”(76)의 공간, 텅 빈 공간이 나타난다. 존스와 세이디는 그곳에서 과도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다 키스를 한다. 세이디가 태어나서 처음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다. 존스는 세이디에게 청혼을 하나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이 달콤한 남자가 자신에게 달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그에게 별을 줄 수 있다”(78). 여기서 그녀가 말한 별은 현실이 아니라 그녀가 상상해 온 그녀의 꿈이다. 그녀는 “녹색 피켓 울타리가 있고 제라늄이 피어나는 하얀 집”을 꿈꾸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녀는 별 다섯 개가 그려진 와인을 마실 때만 그 집을 볼 수 있다. 세이디는 그 동안의 시련을

통해 자신이 현실에서 별을,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한다. 그래서 세이디는 존스에게 그녀의 꿈, 별을 줄 수는 있으나 청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섹슈얼리티 억압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25센트짜리 나이 많은 알콜 중독자이자 창녀, 엄마가 “코트걸이로 놓친 아이”(The One The Coat Hanger Missed 42), 세이디는 그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나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세상에 나오기 전 벌써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손상되었다. “수건 몇 장과 코트걸이, 과산화수소 약간”(45)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은 태어나기 전 “신념은 임신 7개월 때 우유 1 파인트를 심부름”(42)하러 간 아빠와 함께 떠났고, “희망은 몇 주 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42) 뒤따라 떠났다. 그녀에게 “자선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악을 쓰며 우는 그녀의 목을 비틀지 않은 엄마의 선한 행동”(42)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흑인 소설에서 아버지는 부재한다. 아버지의 부재로 세이디의 출생은 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그녀의 인생에서 신념과 희망은 이미 사라졌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아빠를 너무 닮아 싫어했고, 생계를 위해 몸을 팔기 시작하면서 알콜 중독자가 되어간다.

세이디는 어린 나이에 생존을 위해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항상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절대 소음을 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한다. 엄마가 손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이면, 그녀는 빼적거리는 마루판자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소리를 낼까봐 꼭 찬 방광을 참기위해 두 다리를 꼭 쥐기까지 한다. 엄마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은 13살 세이디는 꿈을 꾸다. 세이디의 꿈은 “녹색 피켓 울타리가 있고 체라늄이 피어나는 하얀 집”을 가꾸고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가장 큰 보험회사에서 타이프라이터로 고용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엄마가 마당에서 작은 빨간 장미 하나를 꺼내 옷깃에 꽂고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넌 착한 아이야, 세이디”(44)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녀는 엄마의 칭찬을 받는 사랑받는 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엄마는 세이디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엄마는 “내가 아프고 죽을 때까지 널 먹이기 위해 내내 몸을 팔았어. 이제 너도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44)라고 말하며, 13살 세이디를 데리고 거리로 나가서 매춘을 시킨다.

세이디는 임신을 하고 엄마에게 낙태를 강요당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몸을 팔아 돈을 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름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녀에게 이름은 중요하다. 이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미한다. “코트걸이로 농친 아이”로 불리던 그녀에게 세이디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니엘(Daniel)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매일 밤 그의 입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간다. 그녀는 금발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쓸어 넘기고 “녹색 피켓 울타리가 쳐진 잘 다듬어진 하얀 집”에 그를 초대하는 꿈을 꾸다. 세이디는 알콜 중독으로 엄마가 죽고 백인 여성이 운영하는 사창가의 하녀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이디는 그의 이름을 알기 전에 그곳을 떠날까 두려워한다. 결국 3년 만에 연방보안관들이 사창가를 닫던 날, 세이디는 처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50)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눈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그녀의 단정하게 땀은 머리, 가느다란 목, 짙은 가슴, 좁은 허리를 받아들인다. 드디어 그녀는 다니엘, 그의 이름을 듣고 그의 마차를 타고 그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기차 길 옆 그의 판자 집의 “흔들림”이 암시하듯이 그녀의 삶이 평탄치는 못하다. 다니엘도 그녀의 엄마처럼 알콜 중독자이고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한다. 다니엘은 사창가에서 살았던 그녀의 눈을 의심한다. 다니엘은 그녀의 청소에 짜증을 내고 그녀의 식사법, 그녀가 입을 닦는 법,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술에 취했을 때 그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는 세이디가 백인 창녀 집에서 백인 남자 병(white man's disease)에 걸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녀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부인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그에게 맞서지 않는다. 그가 준 상처는 그녀의 인생에서 작은 상처에 불과했고, 그가 그녀를 이곳에 머물게만 해 준다면 그녀는 견딜 수 있다. 그의 집은 그녀가 상상한 “녹색 피켓 울타리가 쳐진 잘 다듬어진 집”이 아닌 기차 길 옆 방 세 개짜리 판자 집,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석탄 그을음에 시달리는 집이다. 세이디는 기차 시간

에 맞추어 빨래 줄을 다시 닦고 집 청소를 다시하고 이웃들이 수군댈 정도로 집을 청소하고 가꾼다. “세이디는 그녀가 꿈꿔왔던 것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그녀에게 준 남자를 숭배한다”(52). 석탄 가루가 매일 그 집을 침범하더라도 세이디는 꽃을 피워간다.

세이디가 앓아누웠을 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녀가 아파서 돌보지 못해 죽어가는 제라늄, 바로 “그녀의 꽃”이다. 석탄 검댕과 기차 진동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붉은 꽃, 붉은 제라늄은 강인한 세이디를 상징한다. 매년 봄이 되면 세이디는 꿈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가꾼다. 그런 정원의 꽃들이 바짝 말라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세이디가 말라죽은 꽃을 보고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른다. 세이디는 다니엘에게 제라늄에 물을 주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정원을 관리하지 못했다. 다니엘은 자신은 세이디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분수를 알라고 하며 꽃이 든 화분을 마당에 집어 던졌고 세이디는 “꽃이 떠나면 자신도 떠난다”(55)고 말한다. 세이디는 그와 한번 싸운 후 밀린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더기 대신 진짜 커튼을 사고 집안을 더욱 예쁘게 꾸미고 제라늄에 물을 주려고 밖으로 나간다. 다니엘은 목재로 꽃 상자를 만들어 마당 구석구석 제라늄이 피도록 도와준다. 그녀는 직접 나가서 상자를 초록색으로 칠한다. 세이디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그녀의 나이보다 서른 살이 많은 남편이 세상이 떠나고 소식도 없던 두 딸들은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딸들은 200달러를 요구하고, 세이디는 25년간 모아온 살림살이를 팔아 97달러 50센트를 모은다. 그녀는 20일안에 나머지 돈을 모으기 위해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해주고, 빨래를 하고, 집에 오고가는 시간마저 아까워 철길 벤치에서 잠을 잔다. 그러나 그녀를 유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녀는 매춘에 빠지고, 사복경찰에게 붙잡혀 2주 동안 구금되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 집에 돌아 온 세이디는 길은 검댕과 재로 덮인 제라늄을 발견한다. 세이디 주변에서 평생 꿈이 사라지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별이 안에서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다. 그녀는 마른 쭉발에 머리를 쳐 박고 긴 밤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적을 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남자의 손바닥만큼 커다란 손, 여성의 손바닥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손”(65)이 담요로 그녀의 등을 감싸주고 종이 가방에는 튀긴 생선을 넣은 옥수수 빵과 별 다섯 개가 그려

진 포도주 병이 들어 있다. 밤의 환영, 흰색 페인트의 집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무지개가 지붕에 늘어져있고 마당은 녹색과 파란색으로 가득 채워져 죽은 제라늄 잎사귀에는 선홍색 반점이 있다. 새벽이 밝자 밤의 환영이 사라질까봐 세이디는 빵과 생선을 한 입에 먹어치웠고 달콤한 와인을 마신다. 그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그녀의 것이다. 그날 밤 11시 55분부터 3시 12분, 8시 40분 사이에 그녀는 평소처럼 현관을 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빨래를 하고, 화분을 닦고, 스크린도어를 걸고, 지붕을 고치고, 집 전체를 칠하고, 마당을 파헤치고, 마당을 만들고, 벽돌 통로를 만들고, 꽃을 심는다. 세이디는 자신의 꿈을 가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나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녹색 피켓 울타리가 있는 하얀 집”과 그녀의 꽃 “붉은 제라늄”의 환영을 불러일으켜 주는 “다섯 개 별이 그려져 있는 와인”만 있으면 그녀는 만족한다. 그 환영을 불러내기 위해 그녀는 알콜 중독자가 되었고, 그 와인이 필요할 때마다 몸을 판다. 어린 나이에 매춘을 강요한 엄마와 사창가의 가정부 생활을 의심하던 남편으로 인해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훼손된다. 그래서 세이디가 진실 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세이디가 엄마와 남편으로 인해 섹슈얼리티를 손상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아 심리적 우물에 갇힌 삶을 살아간다면 피치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창녀 이미지를 투영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는다. 피치스는 이제까지 베일리 카페에 찾아 온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이상한 나라의 여자”(100)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동질 하는 자아와 억제하려는 자아가 끊임없이 부딪치는 여성이다. 아빠는 아름다운 피치스를 너무나 사랑해서 담을 쌓고 남자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다. 아빠가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녀의 두 자아는 더욱 충돌하는데 피치스는 그녀의 방에 있는 모든 거울 안에서 창녀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창녀이고 나는 아빠의 이야기이다”(104). 그녀의 방에 있는 모닝 글로리와 덩굴이 새겨진 은빛 손거울, 오르골 상자에 달린 거울, 꽃잎 모양의 모든 거울에서 그녀는 창녀를 볼 수 있다. “세상 밖에 있는 모든 거울은 그녀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104). 그녀가 바라보는 빛나는 거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투영하고 있다. 그 거울은 옷을 벗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 젊고 미혼인 여성들이 그녀를 향한 질투심에 가득차서 바라보는 모습, 나이든 결혼

한 여성들이 무기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반영한다.

피치스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그녀를 두 개의 자아로 분열시킨다. 그녀는 거울과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창녀의 이미지와 아빠의 착한 귀한 딸로 분열된다. 그녀의 자아가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는 이유는 그녀가 사회와 문화가 정의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이브 이후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되었고 악으로 규정되었으며 여성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래서 피치스는 청소년기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의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를 분열시킨다. 성가대장이 그녀의 블라우스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그녀는 백조 모양의 거울을 부순다. 그녀가 롤러스케이트의 금속 모서리로 거울을 부숴버린 이유는 높은 제단의 어두운 구석에 놓려진 그녀의 작은 갈색 쪽박지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닿아 그의 부드러운 손에 만져지고, 그의 숨결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누르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떠나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한다. 피치스는 학교에서 A학점을 받고,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걸 가이드에 가입하고, 선교단체에 가입한다. 또한 그녀는 스페인에서 저항군을 위해 봉대를 감았고, 글리 클럽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교회 성가대에서도 활동한다. 하지만 또 다른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남자의 눈에 젖어 피치스를 괴롭힌다. 피치스는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감추기 위해 목이 높은 셔츠, 허리가 혈령한 치마, 두꺼운 모직 양말, 심지어 여름에도 다리를 활꺾는 부츠를 신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이 피치스의 옷을 벗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 그녀는 내면의 창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피치스는 그들에게 창녀를 내어 주면서 자유를 느낀다.

피치스는 자신의 신성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남성들에게 이 야만적인 한 사람을 복종시키기로 결심한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아빠를 바라보며 그녀는 집을 떠난다. 점점 더 아래로 내려앉은 피치스는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한다. 이전에, 그녀는 자신의 선한 모습과 나쁜 모습을 구별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녀 전체가 “성적 욕망에 의해 압도”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피치스는 어느 순간 자신이 남자들과 즐기고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치스는 그녀의 문제점을 알고 그녀의 아빠처럼 그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주 달린 면도기”를 가지고 다니는 도박꾼을 만난다. 그는 그녀를 위해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서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로,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사우스벤드(South Bend)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녀의 또 다른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의 불륜을 알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진주 달린 면도기”를 그녀의 목에 들이댄다. 피치스는 이 남자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쓴다. 피치스는 2주 동안 남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아파트에만 머문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던 피치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피치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신을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맥주 오프너를 들고 오른쪽 뺨을 가로질러 턱의 왼쪽까지 자신의 얼굴을 사선으로 그어버린다. 그녀는 날카로운 고통을 겪는다. 피치스는 자신을 창녀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손상을 입힌다. 피치스는 “이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내적 고통을 몸에 새김”(Wood 390)으로써 파괴적으로 자기 육체를 훼손시킨다.

피치스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녀에게 창녀 이미지를 투영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면, 스위트 에스터 (Sweet Esther)는 오빠로 인해 강제로 섹슈얼리티를 손상당한다. 그 결과 에스터는 자신을 “원숭이 얼굴, 타르, 석탄, 못생긴, 검댕”(95)이라고 정의한다. “어둠 속에서 거미들이 활쭉고 빙빙 도는”(96) 12년 동안의 지하실에서 그녀의 삶은 그녀의 심리적 우물인데, 그것은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에스터는 열두 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오빠의 주인집으로 팔려가 열두 해 동안 지하실에서 생활한다. 그녀는 오빠가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여덟 명의 자식들을 위해 부잣집 농부에게 팔려간다. 오빠는 농부를 남편이라고 소개하는데 에스터는 드레스와 아름다운 하얀 꽃, 교회바닥을 쓸어내리는 베일,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는 결혼이라니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에스터는 오빠이기에 오빠의 말을 믿기로 한다. 어린 에스터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어두운 지하실을 좋아한다. 12년 동안 농부와 함께 지내면서 에스터는 말할 수 없는 성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열두 살 어린 에스터는 농부가 그녀에게 사준 장난감이

성적 놀릿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에스더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인데,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사랑 노래는 에스더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스더를 더욱 아프게 한다. 라디오를 통해서 에스더는 농부가 그녀에게 하는 짓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에스더는 이 악이 멈추기를 기도한다.

에스더는 스물네 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찼고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고 싶지 않는 눈이 되어 버린다. 에스더가 이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브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녀에게 어둠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하실 방을 제공한다. 에스더의 모든 고객들은 그녀를 절대 보지 못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제대로 된 결혼식과 결혼을 영원히 부정 당했기 때문에, 그녀는 방문객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얀 장미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스더는 “어둠과 흰 장미와 여동생” 이 세 가지 단어를 원한다.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 신사들은 이브에게 흰 장미를 사야하고, 에스더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주어야 한다.

12년간 성폭력을 당한 에스더는 자신의 몸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지하실에 가두어 버린다. 그녀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다. 이브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이 베일리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절대로 카페에 나와 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지하실 거미와 동일시하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가 신사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흰 장미는 그녀가 받지 못한 결혼식의 장미를 의미하며 라디오에서 배운 사랑을 의미한다. 남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여동생의 의미는 오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고 오빠에 대한 미움을 담고 있다. 그녀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섹슈얼리티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 대한 훼손은 올바르게 자기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원숭이 얼굴, 타르, 석탄, 못생긴, 검댕”이라고 혐오하게 되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없게 된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세이디, 피치스, 에스더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세이디는 알콜 중독으로, 피치스는 자해로, 에스더는 광기로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빠진다. 섹슈얼리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몸의 감각인데, 이를 상실한 여성들은 주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III. 이브의 창조 신화 다시 쓰기: 섹슈얼리티 발견, 주체 탄생, 델타 먼지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이 있는 이브의 집에 사는 여성들에게 이브는 이브만의 법칙이 있다. 그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녀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여성들이 매춘을 하든지 이브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여성들을 만나러 오는 신사들은 이브의 꽃을 꼭 사서 상대 여성에게 존중을 보여야 한다. 이브는 자신을 찾아 온 여성들을 억지로 치유하지 않는다. 이브는 개인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브는 그녀를 찾아 온 여성들이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치유해 나아가길 기다린다. 피치스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피치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에스더가 어두운 곳을 원할 때 지하실의 전등을 치워준다. 더 나아가서 이브는 베일리 카페의 뒷문 밖으로 마리암과 제시 벨을 데리고 가 그녀들의 치유를 돕는다. 이브는 단단한 자아를 소유한 여자다. 이브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이브가 단단한 자아를 소유하고, 주체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에 의하면 주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오이디푸스적 어머니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져야 하는 존재이다.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가 되어야 만이 아버지의 상징 질서로 진입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니 몸과 관계되는 본능적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초자아가 형성되고 사회적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억압당한 어머니를 복원시켜 모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녀에 의하면 전-오이디푸스적 어머니의 몸은 주체와 분리된 후에도 무의식의 흔적으로 남아 상징계의 질서에 침입하고 이탈하는 전복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크리스테바는 언어 이전의 단계 세미오틱(semiotic)과 주체가 형성되는 상징계, 즉 언어의 영역을 생볼릭(symbolic)으로 구분한다. 크리스테바는 세미오틱을 플라톤이 말했던 코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녀는 코라는 “유일자, 아버지, 심지어 음절에 선행하는 것, 즉, 고대적이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그릇을 의미하고, 양육하고 모성적인 것에 대한 은유”(5)라고 말한다. 이 영역은

정동의 장이고 모성과 긴밀한 장이다. 아이는 주체 형성을 위해 세미오틱을 지배하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어, 문화, 규범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생볼릭의 영역에 진입한 후에도 세미오틱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다. 세미오틱은 생볼릭의 영역에 침입하여 그 경계를 뒤흔든다. 세미오틱의 상징화되지 않는 정동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우울은 신체로 귀환하는데 억압된 “에너지들은 몸의 기관을 공격하고 기능을 저해한다. 기호는 증상으로 굴절되는 것이다”(6).

글로리아 네일러의 주체의 탄생은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보다는 오히려 크리스테바의 세미오틱 코라의 이론에 가깝다. 말없는 기호 세미오틱의 생볼릭 침입은 몸의 증상, 몸의 언어로 나타난다. 네일러가 창조하는 이브는 생볼릭의 세계를 대표하는 대부의 이성적인 세계를 주체의 탄생과 함께 전복시킨다. 이브는 몸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통해 자신을 자각하고 주체로 다시 탄생한다.

『베일리의 카페』에는 일곱 명의 개별 서사가 등장한다. 여섯 명의 서사는 여성의 이야기로, 한 명의 서사는 여성 옷이 편해서 여성 옷을 입는 한 남성의 개별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베일리의 카페에 첫 고객은 이브이다. 이브는 베일리의 카페의 근처에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이 있는 하숙집을 운영한다. 그 하숙집에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이브가 모든 어려운 여성들을 받는 자선 사업가는 절대로 아니다. 그녀가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독특하다. 이브의 집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브는 그 여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여성들은 준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브가 어떻게 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주체로 다시 태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브는 대부(Godfather)에게 침묵 당하고 스킨십을 차단당하며 생볼릭의 질서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감금당해 살고 있다. 그런 이브가 자신 몸 안에 섹슈얼리티를 발견하고 대부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정의하고 주체로 거듭난다. 그러나 그녀의 성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성숙된 자아는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영적인 확대로 나아간다. 자신의 생일을 모르고 궁금해 하는 이브에게 존재의 재탄생은 중요하다. 대부의 그늘 아래 비존재로 살아가야만했던 이

브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은 스스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베일리의 카페』에서 개인의 각성과 개체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 이유인즉 내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치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대부에게 자신의 생일을 물어본다. 대부는 텃줄도 자르지 않은 이브를 풀숲에서 주위와 자신의 이로 텃줄을 잘랐기 때문에 이브의 탄생과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는 생일을 물어보는 이브에게 성의 없이 대충 아무 날짜나 물어볼 때마다 대답한다. 어느 날 이브는 한 시간 동안 스무 번도 넘게 이브 자신의 생일을 물어보나 그때마다 대부가 들려주는 날짜는 다 다르다. 이브의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고 이브가 성장하면서, 파일럿 타운(Pilot town) 공동체의 시선은 이브와 대부에게로 향한다. 주변의 시선에 신경 안 쓴다는 대부는 토요일마다 이브를 씻겨주는 목욕을 그만두고, 이브의 옷자락을 더 길게 만들어 입히고, 그 어느 누구도 이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판을 듣는 대부는 집에만 오면 침묵의 존재이다. 대부가 이브를 때리지 않았으나 침묵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가 화가 났을 때 웃는 것이다. 이브는 “빠르고 날카로운 가성이 유리 조각”(84)처럼 터져 나오는 대부의 웃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한다. 그러나 토요일 밤의 목욕이 멈추었을 때 집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84) 뿐이다.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브에게 토요일마다 대부가 해주는 목욕시간이 그녀가 유일하게 피부감촉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의 감촉을 그리워하는 이브는 미끄러운 목욕통 속에서 균형을 잡기위해 대부에게 손을 뺀다. 때로는 그의 감촉이 그리워 대부가 팔을 뺄 수 있도록 미끄러지는 시늉까지 한다. 공동체의 시선으로 인해 더 이상 대부가 이브의 등에 물을 끼얹으면서 그의 굳은 손바닥이 이브의 어깨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토요일 목욕이 멈추었을 때, 이브는 “파일럿 타운의 그 눈빛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브는 파일럿 타운에서 쫓겨났을 때, 그녀는 맨발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마다 자신을 내쫓은 대부에 대한 원망보다 공동체 여성들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브는 그 공동체의 여성들의 눈빛을 통해 “나는 옳음과 그림, 선과 악을 구

분하지 않아. 나는 나아”(85)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브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증시하는 대부와 달리 자신을 올바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대부는 교회의 설교자이고, 면화 거래소의 저울 관리인이자 장부에 기록을 하는 기록원으로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의 잔디밭이 “곧고 깔끔하게”(85) 질서 있게 자란다면, 이브를 유혹하는 뒤쪽 현관 너머 “페퍼민트 허브들은 잡초들과 민들레로 뒤엉켜 제멋대로 자라고 있다”(85). 그곳은 그녀의 욕망을 부추기고, 대부를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산책로를 따라 뒤엉켜 무질서하게 뻗어있는 페퍼민트 풀숲이 가장 두껍고 달콤해서, 이브는 그곳에 배를 대고 코를 파묻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 삼각주 근처는 공기가 부드럽고 태양의 여열이 비옥한 토양 바로 아래에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대지가 내 따뜻한 살에 기대어 땅 속으로 너무 세게 눌러져서 가슴 뛰는 소리가 귓전에서 들렸다. 벳속과 허벅지 밑의 딱 찬 먼지 속에서 태양의 마지막 두근거리는 온기와 함께. 그리고 나서 빌리 보이가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진동이 낮은 덤불 사이로 비틀거리며 부딪쳤다. 너무 가까이: 진동: 내 심장의 두근거림: 내 팔에 닿는 뜨거운 입김의 빠른 속도. 그리고 그 밑에는 온통 떨림뿐이다. 대지가 움직이는 작은 진동. 그리고 황혼을 뚫고 나오는 그의 육중한 모습. 그 아기의 뇌를 운반하는 어른 크기의 발. 하지만 그가 우리를 찾기 위해 공터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진동이 멈춘다.

near the Louisiana delta that means the air is cream and the lingering heat from the sun throbs just under the rich soil. And I felt the warm earth against my warm flesh, pressed so hard into the ground I could hear my heart beating in my ears—beating in time with that last throbbing warmth of the sun in the packed dirt under my stomach and thighs. And then the vibrations of Billy Boy stumbling and crashing through the low bushes as he came closer. So close: the vibrations: the pounding of my heart: the quickness of my hot breath against my arm. And underneath it all —through it all—just a tremor. A slight tremor of the earth moving. And his hulking figure coming through the twilight. Man-size feet carrying that infant’s brain. But the tremors stop as he stands still in the clearing to begin searching for us. (86)

이브의 섹슈얼리티는 처음에는 자연과 교감을 통해 얻어진다. 늘 침묵과 차가움만이 존재하는 대부와 사는 집과 대조적으로 초저녁 태양의 열기를 품은 대지는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하다. 아기 녀를 지닌 빌리 보이의 쿵광거림은 대지를 진동하게 하고 이브는 마치 사람과 섹스를 나누듯 대지와 교감한다. 여름날 초저녁 태양의 열기가 삼각주 대지에 여전히 남아있고, 이브는 그 열기 속에 누워 이브를 찾기 위해 쿵광거리며 다가오는 빌리를 통해 대지의 떨림을 느낀다. 이브는 따뜻한 대지를 통해 그동안 대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느끼고, “대지가 움직이는 작은 진동”(86)을 통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린다. 이브를 찾은 빌리가 환한 미소를 보일 때, 대지의 진동은 사라지고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던 이브는 그 감각의 상실감으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아픔을 느낀다. 이브는 빌리 보이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고, 대지와 하나가 되어 그 떨림을 온 몸으로 느낀다. 이브는 허벅지를 아주 살짝 가르며 골반을 흠속에 세계 처박고 저 아래, 더 대지 가까이에서 진동을 느끼려고 한다.

이브는 집안의 딱 막힌 침묵에서 벗어나야 할 때마다 빌리 보이를 찾아 땅을 찾아다니고, 이브가 여자로 성장할수록 그 게임은 위험해질 정도로 조여든다. 봄이 험거워지고 새로운 꽃이 피었을 때, 그 게임은 똑같이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브는 더욱 대담해져 위험한 장소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이브는 면화 거래소로 이어지는 포장 도로, 저녁 기도 중에 교회 밖으로 떠나려가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떡갈나무 숲, 대부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장소를 선택한다.

빌리가 일으키는 대지의 진동 속에 이브의 가슴은 갈색 드레스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 떨림으로 거친 천이 이브의 작고 아픈 젖꼭지에 닿고, 벌려진 다리 사이로 팽팽한 욕신거림이 닿는다. 그녀는 “대지가 내 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여 준다”(87)고 말한다. 이브는 가끔은 손톱을 흠에 긁다가 부러뜨리거나 울음을 참으려고 팔을 물어뜯기도 한다. 이브는 빌리 보이와의 관계가 모든 기억과 함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 중 가장 달콤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손가락이 민트를 파고들면서 뿌리째 뽑으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향기로운 박하 허브에 코를 박는다. 이브는 처음에는 대지를 통해, 그 다음은 빌리 보이와의 관계를 통해 몸의 쾌락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브는 대부의 금기를 위반한다. 이브의 금기 위반은 세미오틱 코라의 영역이 생물력의 영역에 침범하여 대부

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흑인의 우주관에서는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만물은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선이기 때문에 다 성스럽다(Schappell 87). 흑인의 우주관에서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지된 욕망과 그로인한 위반마저도 성스러운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브는 자신의 몸의 쾌락을 느끼고 온 우주와 자신이 합일되는 경험을 한다.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통한 자아의 발견은 공동체를 위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간다.

올타리에서 이브와 빌리 보이의 관계를 지켜 본 대부는 이브의 옷을 다 태우고 알몸으로 그녀를 내쫓는다. 이브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날카로운 공기가 폭발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져 “상처 입은 비둘기 떼가 비명”(89)을 지르게 한다. 과일밭 타운에서 아라비까지의 여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브는 누가 나이를 물으면 백년을 열 번 살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좋은 시력과 유머 감각을 잃은 채 시련의 대가를 치른다.

바바라 크리스천(Barbara Christian)은 흑인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지기 보다는 흑인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전체성(totality)을 정의하고, 표현하라고 촉구한다. 그 동안 흑인 여성들은 백인들에 의해 유모, 창녀, 복지 수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난뱅이, 못생기고 열등한 존재로 정의 되었다. 오드리 로드가 말했듯이 “주인의 도구로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112). 흑인 여성들은 주체성 확보를 위해 주인이 정의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정의 내려야 한다. 대부는 자신이 이브를 주워왔다는 이유로 그녀의 생일에 대한 질문, 즉 존재에 대한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고,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녀에게 질서를 부여한다. 그런 대부에게서 추방되었을 때, 이브는 스스로가 자신을 정의한다. 그녀가 자신을 정의하고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델타 먼지”(delta dust)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의 손톱아래 항상 끼어있는 “델타 먼지,” 천년이 지났어도 육조 바닥에 몇 알 씩 떨어지는 “델타 먼지,” 그녀의 지문과 그녀의 피부색에서 씻겨낼 수 없는 “델타 먼지.” 이브는 델타 먼지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그건 나야”(82)라고 말한다. 이브에게 델타 먼지는 중요한 은유다.

델타 먼지는 젖은 상태로 존재한다. 델타 먼지는 비옥한 토양에서 무엇이든 자라게 존재한다. 그 토양은 너무 비옥해서 토마토, 콩, 면화 등을 풍부하게 자라게 한다. 그리고 그때가 살아있는 기억에서 가장 건조한 겨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먼지는 어떤 습기를 느낄 수 있는지 찾아냈고 땀구멍의 작은 땀방울에 달라붙었다. 그것은 그 얇은 수분 막을 이용해서 내 입안의 침과 코의 점액으로 기어 올라갔다. 진흙이 눈가에 맺히고, 눈꺼풀 주변에 고여 속눈썹을 서로 달라붙게 했다. 심지어 내 귀지의 깊숙한 곳에는 그것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수분이 존재했다; 머리가 딱 막히고 깊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것은 손톱 밑, 발가락 사이에 숨겨진 축축함을 발견했다. 엉덩이 사이의 축축한 공간은 쉬웠지만, 심지어 항문 주위의 틈새까지 파고들면서 내장의 매끄러운 벽으로 진흙을 끌어당겼다. 허벅지 위와 질 깊숙이 진흙이 너무 많아서 마침내 생리 혈을 멈추게 했다. 그것의 층과 층이 형성되고, 형성되고, 현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가장 건조한 겨울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라고 있었다. 대부분 항상 날 만들었다고 했는데 난 델타에서 태어났어.

And the delta dust exists to grow things, anything, in soil so fertile its tomatoes, beans, and cotton are obscene in their richness. And since that was one of the driest winters in living memory, the dust sought out what wetness it could and clung to the tiny drops of perspiration in my pores. It used that thin film of moisture to creep its way up toward the saliva in my mouth, the mucus in my nose. Mud forming and caking around the tear ducts in my eyes, gluing my lashes together. There was even enough moisture deep within my earwax to draw it; my head becoming stuffed up and all sounds a deep hum. It found the hidden dampness under my fingernails, between my toes. The moist space between my hips was easy, but then even into the crevices around the anus, drawing itself up into the slick walls of my intestines. Up my thighs and deep into my vagina, so much mud that finally stilled my menstrual blood. Layers and layers of it were forming, forming, doing what it existed to do, growing the only thing it could find in one of the driest winters in living memory. Godfather always said that he made me, but I was born of the delta. (90)

루이지애나 삼각주(delta) 근처 파일럿 타운에서 자란 이브에게 그곳의 흙은 그녀의 고향이다. 델타 먼지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부에게 쫓겨난 후 파일

릿 타운에서 아라비까지의 천 년 간의 상징적 여정에서 델타 먼지는 그녀의 고통을 의미한다. 수분을 함유한 델타 먼지는 비옥한 토양에서 무엇이든 풍성하게 자라게 한다. 그러나 온 몸에 습기를 찾아 달라붙는 델타 먼지는 그녀가 고행 길에서 마주해야했던 고통들이다. 이브는 맨 몸으로 쫓겨났을 때,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고, 사냥꾼들을 만나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델타 먼지가 생리 혈까지 막히게 하는 심한 고통을 의미한다면, 또한 델타 먼지는 그녀의 주체 탄생을 의미한다. 백년을 열 번 살아온 이브는 “내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앞에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있는 길”(91)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진흙(mud)으로 뉴올리온스(New Orleans)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91)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브는 사회가 규정한 여자 되기를 거부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 관념에 따르도록 여성의 몸을 강요하는 것이고 여성의 몸을 문화적 표시로 유도하는 것”(405)이라고 말하는데, 여성의 몸이 역사와 문화, 사회의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브는 과감하게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의 몸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녀가 뉴올리온스에 들어갈 때 자신을 진흙이 되어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젠더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깨끗이 지우고 코드화되지 않은 진정한 정체성을 구현한다.

델타 먼지가 그녀의 주체 탄생을 의미한다면, 델타 먼지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이다. 그녀는 빌리 보이의 쿵광거림에 대지가 진동하고 그 떨림에 마치 사람과 섹스를 나누듯 대지와 교감했다. 이브는 그 교감이 황홀했고, 향기로운 페퍼민트 뿌리를 움켜잡았을 때 그 달콤한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 손톱 아래의 델타 먼지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억이다. 그때의 황홀했던 향기는 그녀를 사로잡아 그녀의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허브가 자라고, 꽃이 자란다. 이브의 손톱 아래에는 언제나 페퍼민트의 향기를 담은 델타 먼지가 존재한다. 삼각주의 토양이 무엇이든 자라게 하듯 그녀는 그 곳 대지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브는 그 델타 먼지의 떨림과 황홀함, 고통을 안고 앞으로 전진한다.

#### IV. 이브의 영적 확대: 이브의 치유 의례

이브는 대지와와의 합일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견하고, 그 황홀경 속에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델타 먼지 속에 다시 태어난 이브는 사업에 성공하고 그 돈으로 돌담이 있고 사계절 꽃을 피우는 이브의 집을 짓는다. 그곳에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방을 내어 준다. “이브는 그녀들에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Puhr 525). 세상 절망 속에 빠진 여성들은 구원의 희망을 안고 이브의 집으로 향한다.

이브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당당한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브의 성장이 주체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으로 성장한 이브는 주변을 살핀다.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은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확장되고 그 사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한다. 그녀의 치유 의례는 그녀의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의식의 변형이 아니라, 변형된 의식의 육화다. 즉, 정신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영성의 목표가 아니라,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다”(김명주 176). 이브는 대지와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견하고 우주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가르쳐준다.

이브의 치유 의례는 베일리 카페의 뒷문을 열면 나타나는 텅 빈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은 “언어로 걸러지지 않은 잉여의 감정과 욕망의 오래된 기억들이 흔적처럼 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있는 곳”(김명주 244)으로 바로 세미오틱 코라의 공간이다. 이브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 그녀들의 고통을 마주하게 하고 치유를 돕는다. 그런데 이브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작용한다. 치유를 원하는 자는 자신과 이브를 믿어야 하고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브는 이곳에서 마약에 중독된 제시 벨과 임신한 마리암의 출산을 도와준다.

제시 벨은 탄탄한 노동자 계급의 가정 출신이며 그들의 빠른 말투와 활기찬

삶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킹스 가문으로 시집간 후, 그 집안의 어른 일라이(Eli) 삼촌과의 갈등으로 마약에 빠지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일라이는 『린든 힐즈』의 네디드(Nedeed)와 같은 존재로 백인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다. 일라이는 항상 “백인들이 우릴 보고 있어. 백인들이 우릴 판단하고 있어”(125)라고 말하며 백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항상 백인들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의 설교에 제시 벨은 “백인은 일라이 삼촌의 신이지 자신의 신은 아니다”(125)라고 주장한다. 일라이는 처음부터 흑인 고유의 전통과 음식을 지키고 사는 제시 벨 가문을 무시한다. 더구나 그는 벨 가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노예 음식”이라고 말하며 경멸한다. 그러나 제시 벨은 일라이 삼촌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 남편 킹스(Kings)에 관한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도발적이다. 바닐라 향이 가득한 목욕물에 들은 목욕을 하고 제시 벨은 다리 사이에 고무마 과이를 끼운다. “다음날 저녁 식사에 필요한 건 그제 전부”(124)가 될 정도로 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아무리 일라이가 방해해 해도 단단했던 제시 벨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약에 빠지고 만다. 일라이는 고의적으로 비가 오기로 예보된 날 제시 벨 아들의 하버드 대학 입학 축하 기념 파티를 계획하고 벨 가문을 두 시간 늦게 초대한다. 일라이는 자신의 손님들만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준비하고 제시 벨의 가족들은 비를 맞으며 파티에 참석하게 한다. 의도적으로 일라이는 자신의 손님들에게 제시 벨 가족을 “서커스에서 훈련받은 원숭이 떼”(130)처럼 보이게 한다. 비를 맞은 그녀의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 돌아가신다. 제시 벨은 레즈비언 클럽에서 급습을 당하고 마약 중독으로 구치소에 끌려가 지역 신문에 도배된다. 다 일라이의 계략이었고 그녀는 킹스 가문에서 추방된다. 제시 벨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에 방문하는 이브의 명함을 받고 이브의 집을 찾아 베일리의 카페에 도착한다.

제시 벨을 위한 이브의 치유 의식은 독특하다. 이브는 베일리 카페의 뒷문을 열고 그녀를 데리고 가 제시 벨에게 악몽 같은 고통을 심어준다. 이브는 제시 벨에게 반복적으로 마약을 복용시킨 다음 금단 현상을 이겨내도록 한다. 이브는 그녀들에게 “벽을 무너뜨리는 순수한 초월 보다는 벽 안에서 억압적인 사회 조건을 인식하게 하고 생존하는 법”(Nash 215)을 가르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알잖아요.—그럼 거짓말한 거 알아. 당신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야. 난 그만두고 싶어요. 빌어먹을!—그래서 뭐가 보여?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졌던 단순한 침실이. 생 솔밭. 물가에 있는 다른 타르 종이 판잡집들을 내다보는 창문 하나. 서늘이 펼쳐진 침대가 있었다. 그녀의 중고 옷장. 그녀의 영화배우 포스터는 모던 스크린에서 뜯어내어 곰팡이가 핀 벽에 붙여졌다: 베트 데이비스, 아이린 던, 클라크 게이블, 조앤 크로포드. 그녀는 엄마가 부엌에서 오래된 나무 스토브와 씨름하는 소리를 듣고, 참 다랑어와 순무 튀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에 혹이 생겼다. 하지만 이걸 진짜가 아니야; 진짜일 리가 없어. 그녀는 굵은 곳을 돌면서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You know I don't see a fucking thing.—Then I know that you've been lying. You have no intentions of quitting.—I do want to quit, goddamn you!—So what do you see? And there it was: the simple bedroom she'd had as a girl. The raw pine floor. The single window looking out at other tarpaper shacks on the waterfront. Her bed with the chenille spread. Her secondhand dresser. Her movie star posters torn from *Modern Screen* and tacked on the mildewed wall: Bette Davis. Irene Dunn. Clark Gable. Joan Crawford. She could even hear Mother wrestling with that old wood stove in the kitchen, smell the frying butterfish and turnip greens. A lump formed in her throat. But it wasn't real; it couldn't be real. She was going around the bend and starting to hallucinate. (138)

이브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제시 벨에게 “그 모든 까망고 텅 빈 공간”(137)을 보게 한다. 제시 벨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큰 상처가 된다. 제시 벨은 어린 시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과 가난했지만 강인했던 어머니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음식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의 꿈으로 돌아간다. 처음에 제시 벨이 그녀의 마약 중독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이브는 제시 벨이 섭취할 수 있는 만큼의 헤로인을 공급함으로써 제시 벨의 결심을 시험한다. 이틀간의 고통스러운 금단현상을 통해 제시 벨을 고통스럽게 한 후, 이브는 마침내 제시 벨이 그녀의 회복에 대해 진지하다고 믿게 된다. 온몸이 시속 70마일로 달려 커다란 벽돌 벽에 박히고, 의식을 잃지 않은 채 “두개골의 찌그러진 조각들이 다시 뇌를 찌르고 폐가 무너지고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 (138-39)을

겪은 후 드디어 제시 벨은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제시 벨은 이브가 자신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시 벨이 환각 상태에 빠져있을 때 이브는 땀으로 가득 찬 수건을 짜내고, 더러운 시트를 갈고, 혀를 깨물지 않기 위해 마분지를 제시 벨의 이 사이에 밀어 넣어 주었다. 제시 벨이 깊고 발작적인 잠에 빠졌을 때, 이브는 혼들의자에서 즐겼다. 이브는 제시 벨에게 냉정한 듯 무심하게 그녀를 대하지만 정성을 다해 그녀의 치유를 돕는다.

베일리의 카페에 다른 여성들이 개인의 의지로 그곳에 와서 이브의 집에 기거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메리, 에티오피아 흑인이자 유대인 메리는 베일리의 카페 옆 전당포 주인인 유대인 게이브가 직접 데리고 이브의 집에 나타난다. 이브는 메리를 마리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브는 임신한 마리암을 베일리의 카페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출산을 돕는다. 마리암은 “아무도 날 건드린 적이 없어”(No man has ever touched me 145)라고 주장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암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에서 쫓겨난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이브가 행하는 의례를 통해 여성 생식기 손상의 폭력을 은유적으로 시연한다. 이브는 세상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자신의 신조대로 다른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과 생활 방식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브는 자두를 가지고 하는 의례를 통해 여성의 할례를 보여주고, 할례에 대한 판단은 그 의례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에 맡긴다. 이브는 마리암이 준 자두를 가지고 그녀의 할례의 고통과 시련을 위로하는 의례를 치른다. 이브가 자두를 가지고 하는 의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한 몸의 감각으로 마리암의 고통을 전달한다. “그 과일엔 연하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불그스름한 검은 피부는 너무 얇아서 벌써 그 살의 달콤함을 향기로 품고 있었어요”(145). 자두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데 이브는 자두를 통해 마리암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이브가 카운터에서 자두를 꺼내 한 손에 부드럽게 안고 있을 때, 나는 바닥에 뿌리를 박고 서 있었다. 부드러운 과일은 쉽게 멍이 들 것이다. 그녀는 손톱 끝으로 배꼽처럼 보이는 중앙의 작고 둥근 움푹 들어간 곳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솔기를 따라갔다. 자두 앞부분의 솔기가 두 개의 포동포동한 둔덕으로 갈라져 완벽하고 통째로 들어차 있었다. 예고도 없이, 그녀가 재빨리 그것을 쥐어짜자 솔기가 열렸다. 내

가 옳았다: 이 과일은 매우 달았다. 약간 열린 것에 불과했지만, 이미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맑은즙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살찐 벽 안에는 단단한 작은 조각이 살짝 보일 뿐이었다. 이브는 갈라진 과일을 손끝 사이에 쥐고 이번에는 칼을 요구했다.

I STOOD ROOTED to the floor as Eve took the plum from the counter and cradled it gently in one hand. Fruit that tender will bruise easily. With the tip of her fingernail she traced the faint seam that ran from the little round dent in the center that looked like a belly button. It was perfect and whole, with the seam dividing the front of the plum into two plump mounds. Without warning, she squeezed it quickly and the seam opened. I had been right: this fruit was very sweet. It was only a slight opening, but clear juices were already beading up from deep within the middle. And down within its fleshy walls was just the glimpse of a hard little nub. Eve held the split fruit between her fingertips and, this time, demanded the knife. (147)

자두의 불그스름한 피부는 여성 성기의 빛깔을, “과일이 쉽게 멍”이 드는 것은 여성의 연약한 피부를, 자두 꼭지의 움푹 들어간 것은 배꼽을, “포동포동한 둔덕”은 여성의 대음순을 의미한다. “살찐 벽”은 소음순을, “단단한 작은 조각”은 클리토리스를 의미한다. “이미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맑은즙이 솟아오르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데 억압받지 않은 여성의 성적 황홀경을 의미한다. 이브는 계속 자두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데 “설탕으로 부풀어 오른 핏줄들이 부드러운 살 사이로 흐르고, 축축하고 부서지기 쉬운 단단한 끝이 중심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148). 이브는 자두에 칼을 대기 전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이브는 칼로 할례의 과정을 시현한다. 거무스름한 호박색 살덩이(소음순)를 잘라내고, 단단한 작은 조각(클리토리스)을 도려낸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마리암의 할례의식과 이브의 자두 의례를 병치시키는데 “아이의 매달린 살갗은 아카시아 가지와 삶은 실로 함께 잡힌다. 몸이 스스로 치유된 후 작은 구멍이 나도록 깨끗한 빨대를 삽입한다. 소변을 볼 수 있게 그 구멍이 필요하다”(151). 마리암의 몸은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이 제거되고 생리 혈과 오줌만 나올 정도의 구멍을 남기고 꿰매

어 진다. 여성의 성기가 더 좁으면 좁을수록 여성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마리아ムの 어머니는 그녀의 성기를 거의 닫게 한 것이다. 이브는 마리아ム을 목욕시키며 그녀의 몸을 보았고 그녀가 강간을 당했다면 온 동네가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말한다.

마리아ムの 출생 예정일에 대한 해답은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베일리의 카페는 인생에서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다. 이곳은 세상일에 고통 받는 이들이 들어와서 희망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카페의 뒤편으로 가서 끝을 내는 곳이다. 생을 시작하는 장소가 아니다. 마리아ムの 등장이 이브나 베일리의 삶의 원칙을 깨뜨렸듯이 아기의 탄생이 “이 거리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224). 이브는 베일리의 카페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유칼립투스 나무들, 향나무, 경사가 가파른 산을 배경으로 “축축한 이끼 냄새와 얽은 햇살”이 비추는 마리아ムの 고향 마을을 그린다. 그 모든 노력에 지친 이브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224)며 “마리아ム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224)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곳은 본인의 의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심연의 공간, 세미오틱 코라의 공간이었다. 어린 마리아ム 대신 이브가 그곳의 배경을 설정했으니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브나 베일리의 걱정이 컸던 것이다.

마리아ムの 비명이 들리고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 이브는 “피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고통을 바꿀 방법이 있어. 그녀가 빛을 의미했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파도”(224)라고 말한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몇 안 되는 손님들 외에 거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에 모여 있었다. 심지어 이상한 에스더도. 그녀는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구부러진 무릎에 팔을 감고 바닥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조차 경의감에 휩싸였다. 은색. 진주. 무지갯빛 핑크. 그것들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방으로 흩어져 천장에 부딪혔다. 벽. 바닥. 반짝이는 구리. 도금된 오렌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금빛. 공기로 소용돌이치고 회전하는 빛의 연속. 많은 타일 위로 흘러들어와 부서지고 액체 다이아몬드처럼 굴러가는 빛의 폭포. 에메랄드. 터키옥. 사파이어. [. . .] 우리는 아기의 첫 번째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었고, 장소는 열광했다. [. . .] 제시는 기막힌 플라멩코를 추면서 치마를 치켜 올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 에스더가 미소를 지었다. 근데 노래를 시작한 것은 바로 피치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난 그녀가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걸 알아. 그리고 영적인 매력이 높고 달콤하게 시작되었지.

Besides the few customers, everyone who lived on the street was gathered inside. And I mean everyone, even strange little Esther. She'd squeezed herself into the darkest corner of the room, sitting on the floor with her arms wrapped around her bent knees. But even her face was in awe. Silvers. Pearls. Iridescent pinks. They now sprayed out into the sunless room and hit the ceiling. The walls. The floor. Glowing copper. Gilded orange. And all kinds of gold. Sequins of light that swirled and spun through the air. Cascades of light flowing in, breaking up, and rolling like fluid diamonds over the worn tile. Emerald. Turquoise. Sapphire. [. . .] we heard the baby's first thin cry—and the place went wild. [. . .] Jesse had her skirt raised in the throes of a mean flamenco. And, wonder of wonders, Esther smiled. But I think it was Peaches who started to sing. I know she has the best voice, and the spiritual started of high and sweet. (225)

마리암의 아들 조지의 탄생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처럼 공동체의 참여와 의식으로 절정을 이룬다. 유대인이자 흑인인 마리암의 건강한 출산을 빌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사는 모든 이들이 베일리의 카페에 모여든다. 조지의 탄생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우주적 조화를 되찾아 주고, 흑인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과거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고, 현재에 대한 희망”(Page 43)을 안겨준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던 에스더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카페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경외감에 휩싸여 웅크리고 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에스더에게 에메랄드, 터키옥, 사파이어와 같은 빛이 쏟아진다. 빛을 극도로 싫어하는 에스더가 어둠의 지하실 계단을 올라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조지의 탄생은 그녀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에스더가 이 성스러운 공동체 의례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회복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제시 벨은 치마를 치켜 올리고, 멋지게 플라멩코를 추며 조지의 탄생을 축하한다. 피치스는 매혹적으로 황홀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들을 바라보던 에스더가 미소를 보인다. 개인적 고통에 고립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지의 탄생 과정에서 통합”(Montgomery 27)된다. 『마마 데이』의 조지의 탄생 비밀이 풀리는 순간 흑인 여성들은 모두가 하

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 속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한다.

## V.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주체로 올바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남을 치유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브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견하고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단단한 자아를 형성한 이브는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비밀을 찾아 산고를 줄여주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며, 꿈과 무의식의 영역을 넘나드는 치유자”(스타호크 322)다. 이브는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그녀의 영성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흑인 여성들을 치유한다.

그녀는 베일리의 카페 뒷문을 열고 나아가 마약 중독자 제시 벨의 치유를 도와주고 마리암의 출산을 돕는다. 그녀는 남을 평가하지 않듯 다른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그녀는 자두를 가지고 마리암의 여성 할례 의식의 고통을 보여주고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마리암을 제외하고 그녀를 찾아오는 여성들의 치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한다. 어린 나이에 섹슈얼리티의 억압에 시달려야 했던 세이디, 피치스, 스위트 에스터에게는 시간이라는 치유의 처방을 내린다. 그녀들 자신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네일러는 그녀의 네 번째 작품 『베일리의 카페』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손상 받은 여성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그녀들이 몸을 팔고 살아가더라도 그녀들은 충분히 존중 받을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다. 네일러는 “삶이 무도회장이라고 생각하라(Make-Believe Ballroom)의 그 멋진 바이올린 음악”(219) 같다면 인생이 행복으로 충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몇 개의 멜로디 뿐”(219)이기 때문에 “인생은 단지 당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219)라고 말한다. 비록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이 한때는 불행했지만 그녀들은 재즈의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단한 여성들이다.

## Works Cited

- Ashford, Tomeiko R. "Gloria Naylor on Black Spirituality: An Interview." *MELUS* 30: 4 (Winter 2005): 73-87. Print.
- Berson, Misha. "Naylor's Made It-Noted Novelist Passes Apprenticeship With Colorful *Bailey's Cafe*." *Seattle Times*. 24 Sep. 1992. Web. 21 Aug. 2021.
- Butler, Judith.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Writing on the Body: Female Embodiment and Feminist Theory*. Ed. Katie Conboy, Nadia Medina, and Sarah Stanbury. New York: Columbia Press, 1997. 401-17. Print.
- Chavanelle, Sylvie. "Gloria Naylor's *Bailey's Cafe*: The Blues and Beyond."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36:2 (1998): 58-73. Print.
-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1985. Print.
- Eisler, Riane. *The Chalice and The Blade*. California: HarperOne, 1988. Print.
- Gimbutas, Marija. *The Early Civilization of Europe*. Monograph for Indo-European Studies 131.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0. Print.
- hooks, bell. *Teaching to transgress: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4. Print.
- Kim, Myung-joo. *Women's Sexuality and Spirituality: Feminism for Love*. Daejeon: Chungnam UP, 2018. Print.  
[김명주. 『여성의 성이 쁘스러웠을 때: 사랑의 페미니즘을 위하여』.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Kristeva, Julia. *In the Beginning was love*. Trans. Arthur Goldhamm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Print.
- Lerner, Gerda. *The Creation of Patriarchy*. New York: U of Oxford P, 1986. Print.
- Ludre, Audre. *Sister Outsider: Essays and Speeches*. New York: Crossing Press, 2007. Print.
- Montgomery, Maxine Lavon. "Authority, Multi-vocality, and the New World Order in Gloria Naylor's *Bailey's Cafe*." *African American Review* 29.1 (1995): 27-33. Print.
- Nash, William R. "The dream defined: *Bailey's Cafe* and the reconstruction of American cultural identities." *The Critical Response to Gloria Naylor*. Ed. Sharon Felton and Michelle C. Loris. Westport: Greenwood, 1997. 211-25. Print.
- Naylor, Gloria. *Bailey's Cafe*.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1993. Print.
- \_\_\_\_\_. *Linden Hills*. New York: Penguin, 1986. Print.
- \_\_\_\_\_. *Mama Day*.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1993. Print.
- \_\_\_\_\_. *The Women of Brewster Place*. New York: Penguin, 1983. Print.

- Page, Philip. "Living with the Abyss in Gloria Naylor's *Bailey's Cafe*." *CLA Journal* 40.1 (1996): 21-45. Print.
- Puhr, Kathleen M. "Healers in Gloria Naylor's fictio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0.4 (1994): 518-27. Print.
- Schappell, Elissa and Claudia Brodsky Lancour. "Toni Morrison: The Art of Fiction CXXXV," *Paris Review* 35. 128(Fall 1993): 82-125. Print.
- Starhawk. "Witchcraft and Women's Culture." *Womanspirit Rising*. Carol P. Christ and Judith Plaskow. Trans. Myung-joo Kim. Daejeon: Chungnam UP, 2011. 320-32. Print.  
[스타호크. 「마법과 여성 문화」. 『여성의 성스러움』. 캐롤 P. 크리스트, 주디스 플라스코. 김명주 외 공역.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320-32.]
- Wood, Rebecca S. "Two Warring Ideals in One Dark Body": Universalism and Nationalism in Gloria Naylor's *Bailey's Cafe*." *African American Review* 30.3 (1996): 381-395.

이연숙 (충남대학교 / 박사)

주소: (33336)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2, 1401호 (디엠에이스빌아파트)

이메일: yslee8338@hammail.net

논문접수일: 2021. 09. 30 / 심사완료일: 2021. 11. 10 / 게재확정일: 2021. 11. 10